

건설 철강재 원산지 표시에 반발

도내 일부 건설업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놓고 독과점 구조 비호” 비판

건설용 철강재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도내 일부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철강재 업체의 독과점 구조를 비호하고 건설현장의 부담과 책임만 부여하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26일 건설현장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현재 표기되는 내용은 ▲공사내용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한 자재 사용을 위해 철강재 원산지 표기 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 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 사용을 장려한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철강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심각해 저질 수입산 철근이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는 강경입장이다.

실제로 2015년 관세청이 내놓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현황결과 49.2%가 철강제품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레이콘 ▲아스콘 ▲바닷모래 ▲철강재 ▲부순골재 ▲순환골재 등 주요 건설 부·자재들의 원산지까지 공개하자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관련, 건설업계는 이는 저질 수입산 철근의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건설자재의 원가상승을 조래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외국의 경우 건설 현장과 완공된 건축물 표지판에 주요 사용자

재 원산지 명기를 하지 않는다. 또 원산지 표시만으로 공사 품질이 확보될 것이라 생각은 연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반대 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설자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품질기준 시험 등을 거쳐 통과된 경우에만 사용토록 의무화돼 있는 상황이다. 또 수입 철강재 품질이 국산 이상일 경우에도 사용이 기피돼 값싼 국산 철강재 사용만 강요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현행법상 모든 수입 철근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통과하게 돼 있다. 부실자재는 처음부터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품질이 문제라면 원산지 표시를 명기하는게 아닌 정부가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신광영 기자

익산국토청, 일반인 대상 건설안전 아이디어 발굴나서

현장 안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 주제로 이달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접수

익산국토청이 일반인들의 건설안전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더 안전한 호남 건설현장 만들기에 앞장선다.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신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및 호남 건설현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건설안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건설현장 종사자는 물론 학생과 일반인 등 건설안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내용

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 건설현장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접수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27일까지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5명을 선정하며 최우수상은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입상자는 11월 21일 개별 통보와 함께 익산국토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incom.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서는 익산청 건설관리실(063-850-9426)로 하면 된다.

익산국토청 김철중 건설관리실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일반인들의 신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현장에 접목시켜 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인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나와 해양 환경정화 활동을 위해 찾 아간 송림해수욕장에서는 지난

전주상공회의소, 도시교류 위한 업무협약

미국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와 지역간 무역·투자·기술교류 등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와 미국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현아)가 26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도내 기업인과 정현아 미국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양 도시 기업인간 상호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업무제휴 양해각서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지역간의 무역, 투자, 기술교류 등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양 상

공회의소에서 방문하는 사절단 및 상공인에 대해 상담, 거래알선, 간담회, 산업시찰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상공인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상호 정기방문을 추진키로 했고, 양 지역의 산업, 경제동향, 지역 개발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은 “급속한 글로벌 경제변화와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전주상공회의소와 워싱턴주 한

인상공회의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양 도시가 실질적인 협력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경제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한미 양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현아 미국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직은 양 상공회의소의 협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교류회를 계기로 점차 기술 제휴나 수출 확대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라북도 기업과 워싱턴주 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www.khnp.co.kr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무주양수발전소는 무공해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로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이란?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위치가 낮은 하부저수지의 물을 위치가 높은 상부저수지로 끌어 올려 저장하였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저장된 물을 하부저수지로 낙하시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양수발전은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주파수 조절 및 정격전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무주양수 홍보관 관람정보

- ▶ 개관시간 : 주중 09:00 -17:00, 주말공휴일 10:00-16:00 (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
- ▶ 휴관일 : 신정·연휴 · 설 연휴 · 추석연휴 · 기타 휴관일
- ▶ 관람신청
- 전화문의 : 070-4000-2141,2144 · (063)324-3665 / FAX:(063)322-2063
- 인터넷신청 : www.khnp.co.kr/한수원 방문신청 / SNS인증 / 무주양수 홍보관
- ▶ 주 소 : 전북 무주군 적삼면 괴목로 788 「무주양수홍보관」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



올해로 3기를 맞이한 하림 피오봉사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야생동물 및 자연 보호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가족 봉사단이다.

하림, 서천 해안 환경정화활동

피오봉사단, 송림해수욕장서 쓰레기 수거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의 임직원과 소비자들로 구성된 '피오봉사단'이 지난 24일 충남 서천 해안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3기를 맞이한 하림 피오봉사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야생동물 및 자연 보호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가족 봉사단이다.

하림 피오봉사단은 본격적으로 해안 환경정화 활동에 앞서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관람했다. 해설가의 안내에 따라 수많은 해양생물을 관찰하고 로봇 물고기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해양생물을 주제로 한 4D영화 감상은 어른과 아이 모두 해양생물 보전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였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나와 해안 환경정화 활동을 위해 찾 아간 송림해수욕장에서는 지난

여름, 피서객들이 남긴 쓰레기 중 미처 수거되지 못한 것들과 파도에 휩쓸려온 해양쓰레기들을 치우는 작업을 진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7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해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선박 운항에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매년 수거되는 양은 그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봉사단원 최유미씨는 “매년 여름 휴가지로 가장 먼저 바다를 떠올리면서도 휴가철 이후에 바다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며 “바다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놓고 내년 여름에 사람들이 다시 이 곳을 찾아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쓰레기를 주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농협 여성지도자 한마음대회

전북농협은 26일부터 이틀간 농협 창녕교육원에서 ‘전북사랑! 농촌사랑! 전북 여성 지도자 한마음대회’를 열고 이날 밝혔다.

한마음행사는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고향·농가주부모임 등이 참여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150여명의 여성 지도자들은 “여성 리더로서 다음 세대에 모범이 되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행복한 농촌·생동하는 전북을 위해 여성 지도자들의 힘을 모으겠다”고 피력했다. /뉴시스



힐라, 여성피트니스 전용 라인 출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힐라는 2016 가을·겨울 시즌 여성 피트니스 전용 라인 ‘힐라핏’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힐라핏은 올 2016년 ‘스타일리시 퍼포먼스’로 브랜드 정체성을 재정의한 힐라가 이번 가을·겨울 시즌 선보이는 여성 전용 피트니스 라인이다.

피트니스나 요가, 필라테스 등 인도어 스포츠 활동에 최적화된 기능성과 여성의 바디라인에 입각한 인체공학적 패턴 설계, 스타일리시한 감성의 디자인을 적용했다.

빠르게 땀을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흡습속건 기능, 스트레칭이 뛰어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활동성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은은한 핑크나 브라운, 그레이 등의 여성스러운 색상 조합과 변형된 카모플라주 패턴 등을 사용한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여성스러움을 극대화,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브라탑과 슬리브리스를 비롯해 레깅스, 티셔츠, 쇼츠 등 다양한 아이템을 통일된 콘셉트에 맞춰 출시해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도록 했다.

힐라 관계자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즐기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애슬레저 열풍의 영향으로 스포츠웨어, 특히 전문 피트니스웨어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종목에 맞춰 기능성과 패션성을 갖춘 스포츠웨어를 갖춰 입으면 최적의 운동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운동 효과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